

신년사설

한국불교의 잠재력 살리자

한국 불교는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대사회에 당당히 설 수 있을 것인가? 불기 2546년을 맞으면서 또 새롭게 묻지 않을 수 없는 물음이다.

조선왕조의 불교 탄압과 일제 강점기의 수난, 그 뒤에 닥쳐온 서양 문명의 홍수를 견뎌 오면서 오늘의 불교는 그 역사적 질곡의 그늘을 가장 짙게 간직하고 있다. 이제 오늘 불자들이 민망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종단의 내부적 문제 등도 결국 알고 보면 그러한 역사적 질곡이 다른 모습들로 분장하고 나서는 면이 없다.

빨리 벗어던져야 할 그 역사적 질곡을 그토록 벗어던지지 못하고, 그에 겹쳐 현실 사회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불자들이 불교계의 나태와 방일 때문에 지금의 불교는 빈사상태의 거인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다. 그래도 거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통 종교 가운데서는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고 있는 의형 때문이다. 과연 이 거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수없이 외쳐온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 생활화 등의 구호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가? 승단의 수행 풍토 진작, 재가 불자들의 신행 운동 등은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가? 불교는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변했으며, 그 구체적인 예증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얼핏 불교는 많이 변한 듯도 하고 또 변하지 않은 듯도 하다. 그 확실한 대답 없음을 다시 불자들을 감동하게 만들고 불교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변화란 것에 대하여 너무 급하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어디 갈 수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불교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

어야 한다. 겨울 추위에 매달린 고드름을 보라. 햇살이 비쳐 그것을 녹일 때, 끝에서 차츰 녹아서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녹다 보면 뿌리 부분이 녹아 툭 떨어져 내린다. 불교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을 변화 시킬 뿐만 아니라 불교의 뼈대, 그 뿌리를 녹여내고 있으리라고 믿어보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날 고드름이 툭 떨어지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변화된 불교의 새날이 우리 앞에 전개되리라 믿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희망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올해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헛된 꿈이 아니다. 언제 다 녹을까 싶던 고드름이 툭 떨어지듯이, 변화가 쌓여 가면 바로 내일이라도 어떤 비약적인 새 날이 오는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내일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꾸준한 실행을 계속해야 한다.

이러한 희망에는 근거가 있다. 불교처럼 역사의 질곡을 벗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의 노력을 계속해 온 집단에는 그 자체의 역량이 쌓여 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미 많은 힘들이 쌓여져 왔다고 보아야 옳다. 물질적인 지원과 포교의 방법까지 외제를 차용해 와서 현실에서 눈에 띄는 비약을 보인 종교와 달리 그 동안 스스로 쌓아 온 잠재력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을 더더욱 힘찬 실행으로 드러내 보자.

올해에는 우리들의 잠재된 힘을 드러낼 무대도 많다. 월드컵 대회를 통해 한국이 세계적으로 열리는 해, 그 국제적인 무대에 불교의 열린 마음을 전하는 일도 큰 일이 될 것이다. 불교 내부의 문제에 연연해하지 말고, 눈을 밖으로 돌려 부처님의 큰 지혜 광명을 쓰려는 큰 자세를 지닌다면, 자연히 불교 안의 문제도 고드름 툭 떨어지듯 사라질 것이다. 그러한 한해가 되게 하기 위한 커다란 발원에 두 손 모아.

전국비구니회관 완공

3년만에 서울 수서동에... 30년 숙원 풀이

스님 여성불자 교육·포교·복지 공간 활용

전국 7천여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불사가 드디어 마무리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에 들어선 전국비구니회관의 준공검사를 이달 중에 받고, 오는 초파일 이전에 대대적인 개관식을 봉행하기로 했다. 99년 3월 공사에 착공한지 3년만에 비구니계의 근본도량이 마련됨으로써 비구니계의 교육, 포교, 복지불사가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만불전 등에 대한 내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비구니회관은 대지 1천2백40평, 건평 2천5백6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반야용선(배) 모양의 현대식 건축물로 조성됐다.

대법당(만불전)과 교육관, 대강당, 강의실, 불교문화실, 도서관, 탁아실, 체력단련

실 등을 갖춘 비구니회관은 종합불교회관으로서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에게 대한 교육, 포교, 복지사업은 물론 청소년, 장애인, 지역민 등을 위한 사회복지 및 문화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번 비구니회관 건립불사는 85년 전국비구니회가 회관 건립을 발원한 이후 9년 전 시유지를 불허받아 추진해왔으나, 이씨 종중부지 문제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더구나 IMF관리체제라는 국가적인 경제난에 직면해 불사금 부족 등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사를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게 된 것은 비구니회가 공심(公心)으로 화합해 삼보정재를 투명하게 관리해 온 덕분이었다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준공이후 일주된 건립 등 도량정비가 남아있는 비구니회관은 앞으로 전국에 흩어



전국비구니회관 준공식 모습. 왼쪽부터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김재경 기자

한국비구니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이 착공 3년만에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다. 사진=고영배 기자

화합분위기 이는 태고종

양측 고소·고발 취하 합의

태고종의 안정과 대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지난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4차례 비상대책회의를 스님들과 만나 종단안정과 화합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양측은 '상호 고소 고발 건을 모두 취하하는 등 대화합을 위해 적극 나서자'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총무원장 운산스님은 화합을 위한 종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2월 한달동안 대전 대구 경북 충북 광주 전남 지역을 순회했으며, 이달 말까지 다른 지방도 순회, 종도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은 3일 오전 11시 총무원 설법전에서 열리는 인오년 신년 하례법회에 비상대책회의를 스님들을 초청할 예정이

이경숙 기자

정대스님 무궁화장 불교계 화합안정 공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지난 12월 27일 문화관광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발전 유공 종교인 국민훈장 전수식'에서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사진). 정대스님은 불교계 화합과 안정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무산 스님(백담사 회주)은 동백장을, 범상 스님(수덕사 주지)과 범하스님(통도사 성보박물관장), 훈광 스님(전태종 관문사 주지), 인공 스님(불원사 주지)은 목련장을 각각 받았다.

한편 이번 전수식에서는 정대스님 등 불교계 6명 외에 이만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개신교 5명, 천주교 2명 등 모두 15명이 국민훈장을 받았다. 정부가 종교인만을 대상으로 국민훈장을 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철우 기자

"백제후손이 천황 생모였다"

日王 기자회견서 밝혀

일본 국왕이 "간무(桓武)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고 말했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68세 생일을 맞은 지난 12월 23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한일 양국의 문화 교류는 훗날 일본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일본 국왕이 한국과의 역사적 교류 사실을 들며 양국관계에 대해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무령왕은 일본과의 관계가 깊고, 당시 일본에 오경(五經)박사가 대대로 초빙됐다"고 말하고, "무령왕의 아들 성명왕(聖明王)은 일본에 불교를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권원기 기자

김재경 기자

중종교인 입당 허용추진

중국 공산당이 종교계 인사의 입당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종교정책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대만 일간지 중국시보(中國時報)는 지난 12월 25일 을 가을에 열리는 제16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종교계 인사들의 입당 문제가 주요 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시보는 또 종교와의 대립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이 상실되고 있다며 통제 일색의 종교정책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www.yoslamun.com. 편집국: (02)722-4162, 광고국: (02)732-1522, 구독신청: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만평 김영민. 만중생을 부처님처럼... (Illustration of a group of people in traditional Korean attire).

제보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청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 등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722-4162 FAX: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謹賀新年.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응종. 종정 영산 일공, 부종정 유념 법신. 총무원장 최법륜, 총무부원장 선진, 재무부장 대월, 규정부장 대천, 사회부장 체인, 사업부장 체도, 사업국장 보월. 인천총무원장 인천, 충남총무원장 총남, 광주총무원장 광주, 전남총무원장 전남, 부산총무원장 부산, 경남총무원장 경남, 경북총무원장 경북, 대구총무원장 대구. 법원 체혜호도은불일, 원로원부원장 원로, 승정원장 승정, 중앙비구니회회장 중앙, 포교원장 포교, 승산 선명보인대월성견, 문화원장 문화, 교육원장 교육, 중앙종의회회장 중앙, 중앙종의회부회장 중앙, 중앙종의회의원 중앙. 정관 벽성관천호, 인관 정광, 대웅, 석천, 성육, 보선, 해민, 선덕, 진연, 체명, 체정.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화: (02) 853-0531 / FAX: (02) 853-0532